

상벌점제 · CCTV 통합관제 폐지

전북도교육청, 학생통제수단 악용 · 인권침해 우려 각 학교에 안내문 발송

전북도교육청이 그린 마일리지 시스템(상벌점제)과 초등학교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를 전면 폐지한다. 학생통제수단 악용 우려와 인권침해 논란 때문이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6 학생 생활교육 계획을 확정하고 도내 각 학교에 안내했다.

'학생생활 교육'을 살펴보면 도내 초·중·고교의 생활교육이 피·가해자간 관계회복에 중점을 둔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전환됐다.

또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상벌점제와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는 전면 폐지됐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가해(비행)학생 처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생활교육에서 피·가해자의 회복과 관계 개선을 위한 생활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회복적 생활 교육 조정 전문가를 양성해 학교 현장에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교육 전문가는 피·가해자를 공

평하고 중립적인 대화에 참여시켜 양자간 요구와 갈등을 이해하고, 자발적 책임을 일깨워주는 등 일련의 합의의 과정을 이끌게 된다.

상벌점제도 전면 폐지됐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4월 체벌 대체 수단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초기부터 학생 인권 침해 논란과 함께 교사들의 학생 통제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군산과 김제에서 시범 운영하던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 사업도 학생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보고 전면 중단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CCTV를 24시간 관제해 인권 침해 논란은 큰 반면, 관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도 교육청은 분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합관제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통신비, 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을 감당하는 것도 무리라고 판단해 올해부터 예산지원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직장맘 고충상담소 무료 노동법률 상담

직장맘 고충상담소(소장 신민경)에서는 9일부터 매일 둘째·셋째 주 수요일 오후 6시 홈플러스 효자점에서 직장맘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무사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내용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둘러싼 제반의 상담과 연차휴가, 실업급여 등 노동권 전반에 대해 상담이 이뤄진다.

신민경 소장은 "상담 요청 시에는 사업주와 직접 통화하거나 고용노동지청 동행도 가능해 고충이 있는 직장맘들이 상담소를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나만 나처럼 살 수 있다' 웃음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8일 시청 강당에서 열린 전주시 열린시민강좌에 참석한 시민들이 강사로 나선 이요셉 한국웃음연구소장의 '나만 나처럼 살 수 있다'를 주제로 한 강연을 들으며 즐거움과

행인 폭행 20대 입건

전주원시경찰서는 8일 자신을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7시50분경 전주시 남부시장에서 행인 A(25)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주 기자

불법 낚시대회 연 주인 '덜미'

유료낚시대에서 불법 도박성 낚시대회를 연 낚시대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7일 불법 낚시대장은 개장한 혐의(도박개장)로 김모씨(54)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저녁 7시에 익산시 춘포면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대에서 총 32명의 낚시꾼에게 1인당 1만1천원을 받고 불법 낚시대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주 기자

전주시,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

저수지 41곳등 축조 50년 이상

전주시는 관내 농업용 저수지와 관정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기 안정한 용수공급에 대비한다고 8일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관리 농업용 저수지는 총 41개소로 이 가운데 41개소가 축조된 지 50년 이상된 노후 저수지로 지속적인 보수와 안전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수자원분야 전문가

관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2개반 8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이달 말까지 현장 안전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상태가 양호한 A·B등급 저수지 9개소와 현재 보수보강중인 2개소 정밀안전진단 대상 13개소 등 총 24개 저수지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C·D등급저수지 20개소는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가뭄에 대비해 선제적 용수공급대책으로 관내 관리중인 78개소의 농업용

대형관정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병행해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현장 시정이 가능한 사항 즉시 현장조치하고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내에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등 시설상태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이남철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봄영농철 용수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안전관리대책을 강화해 농민들이 안전하게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노후공동주택 시설 개선

21개 단지 관리비 지원 · 지하주차장 LED 전등 설치

전주시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래된 공동주택의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전주시는 올해 총 3억6000만원을 투입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21개 단지의 관리비용 지원과 지하주차장 LED전등 교체 등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으로, 노후 공동주택 19개 단지에는 관리비용 3억4000만원을, 2개 단지의 경우 지하주차장 LED전등 교체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건축사협회와 주택관리사협회,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민주거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옥상방수를 비롯해 아파트 내구성을 위한

보수공사, 도색공사,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보수와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단지별 관리비용의 70% 이하로, 최고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전주시는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78%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다수의 시민이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전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 지난해까지 총 331개 단지 4만7523세대에 모두 37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백승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노후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통해 낡은 공동주택의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주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지법 남원지원, 알선수재 혐의 순창군수 부인 '무죄' 선고

황숙주 군수 "무거운 짐 털고 군정매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황숙주 순창군수 부인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민수)는 8일 인사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순창군수 부인 권모(5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인 B씨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합리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고, 일부 진술 내용은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거나 다른 증거들과 배치된다"면서 "B씨 등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권씨는 지난 2013년 4월 지인 A씨로 부터 "아들을 순창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또 다른 지인 B씨를 통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권씨는 재판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해 6월 15일 구속 기소된 권씨는 같은 해 9월 2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알선수재 혐의로 법정에 선 부인의 무죄 선고로 당장 황숙주 군수는 무거운 짐을 털고,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 군정에 매진할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수 부인의 알선수재 혐의를 둘러싼 지루한 법정공방을 지켜본 군민들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군수 부인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태안광사업 허가를 미끼로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순창군수 전 비서실장 공모(48)씨는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친인척과 주변 인물 관리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순창군수 부인의 무죄 판결에 대해 군민들 사이에는 "군수 부인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범인의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환영할 일이나 이번 일을 계기로 군수 주변 인물 관리에 더 한층 경계해야 한다"며 "군수 부인의 법정공방으로 흩어진 지역 민심을 추슬러 순창군 발전에 주력해주시길 바란다"는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영재 기자 · 순창=구인규기자

스피치 · 웅변 · 면접 · 리더십 · 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토론과 면접) 전담교수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최초 스피치마당 설치 강연자
-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쉽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컨설팅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마당' '나를 세운 말, 말발' '스피치노하우' 등
- 방송: KBS 아침마당(3회), MBC 전라도사람들 JTV현장다시보기 등 방송출연

※ 과 목: ①스피치기법과 리더쉽 ②스피치최고지도사(고급)
③주말반: 토요일(매주 1회수업) ④면접반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익산캠퍼스)
서남대학교 평생교육원(남원, 순창, 장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군산, 김제, 부안)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완주, 김제)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임실, 완주)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정읍, 고창)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